“위안부 합의 무효” 광주나비 힘찬 날갯짓

광주 시민단체들 모여 출범…시청앞 소녀상서 매주 수요집회
위안부 명칭 삭제·일본군 성노예 생존자 존엄성 회복 나서
여수 평화의 소녀상 제막식…광주 북구도 건립추진위 발족

3·1절 굴욕적인 한일 합의에 반대하는 ‘평화의 소녀상’이 여수 등 전국 곳곳에 세워졌다. 광주에서는 ‘광주나비’가 힘찬 날개짓을 하며 출범, ‘평화의 소녀상’ 앞에서 정기 수요집회를 시작했다. 북구에서도 ‘평화의 소녀상’을 건립하기로 했다.

‘일본군 성노예 생존자 문제의 정의로운 해결을 위한 광주나비’가 1일 낮 12시 50분 광주 5·18민주광장에서 출범식을 갖고, 정기 수요집회를 시작했다.

광주나비는 발족 선언문에서 “12·28 한일 위안부 합의는 공식 사죄와 법적 배상 없는 굴욕적인 합의이자 피해 당사자가 배제된 졸속 합의”라며 “광주나비는 불법적인 12·28 한일 합의 폐기와 일본 정부가 일본군 성노예로 끌로 간 아픈 역사를 기억하고 바로잡고자 한다”고 밝혔다. 이어 “일본의 집단자위권 행사 등 평화를 위협하는 어떠한 행위도 간과하지 않겠다”면서 “위안부 명칭 삭제, 생존자 명예와 존엄 회복에 광주시민과 함께 행동하겠다”고 선언했다.

광주나비는 근로정신대 할머니와 함께하는 시민모임·광주시민단체협의회 등 한일 합의에 반대하는 단체와 개인으로 구성돼 있다.

광주나비는 출범 상징성 때문에 이날 행사를 5·18민주광장에서 열었지만, 다음 달부터는 첫 번째 수요일 정오마다 광주시청 앞 평화의 소녀상 주변에서 정기 수요집회를 이어간다.

시청 앞 잔디광장의 소녀상을 시민의 눈에 잘 띄는 장소로 옮기는 방안을 광주시와 논의할 계획이다. 이 단체는 또 광주·전남지역 유일의 위안부 생존자인 곽예남(92) 할머니를 후원하고 있다.

여수 이순신광장에서는 이날 시민 1만여명의 성금으로 건립된 ‘평화의 소녀상’ 제막식이 열렸다.

여수 평화의 소녀상 건립 추진위원회가 9개월간 범시민 운동을 통한 성금으로 설치됐다. 1만여명이 참여해 모두 9800여만원을 모았다.

이영일 여수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상임대표는 “소녀들이 후손들의 기억과 망각의 경계에서 귀향을 꿈꿨을까 생각하니 너무 죄송하고 송구스럽다”며 “우리 아이들의 평화로운 미래를 위해 평화의 나비가 되어 달라”고 호소했다.

광주 북구에서는 ‘평화의 소녀상 건립 추진위원회’의 발족식이 열렸다. 북구 평화의 소녀상은 오는 8월15일 광복절 건립을 목표로 하고 있다.

건립추진위는 매주 수요일 오후 7시 전남대 후문에서 북구 평화의 소녀상 건립 홍보와 함께 모금운동을 펼칠 예정이다.

/김한영기자 young@kwangju.co.kr
/여수=김창화기자 chkim@

일본군 성노예 생존자 문제의 정의로운 해결을 위해 결성된 ‘광주나비’가 1일 광주시 동구 5·18민주광장에서 발족식을 연 뒤 “굴욕적인 한·일 일본군 위안부 합의 무효”를 외치고 있다. /최현배기자 choi@kwangju.co.kr

8개월된 아이 버린 ‘비정한 엄마’

초교 예비소집 불참으로 7년만에 밝혀져…영장 신청

생활이 어렵다는 이유로 8개월 된 아들을 시장 골목에 버리고 달아난 비정한 엄마가 경찰에 붙잡혔다.

광주남부경찰은 1일 아들을 유기한 혐의(아동복지법 위반)로 A(여·40)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A씨는 출산 후 아이를 출생신고했으나 형편이 어려워지자 지난 2011년 4월 서울시 동대문구 한 시장 골목에 자신의 아들을 버려두고 간 것으로 조사됐다.

버려진 아기는 시장을 지나던 시민이 신고하면서 아동보호소로 옮겨졌다가 경기도 양평 소재의 한 보육원으로 보내져 자라왔다.

경찰은 지난달 초등학교 예비소집에 나타나지 않은 아이의 소재를 추적하면서 A씨를 붙잡아 “7년 전 아이를 버렸다”는 진술을 받아냈다.

A씨는 경찰이 아이의 과거사진을 보여주자 순순히 자신의 아들임을 인정했고, 아들을 유기하게 된 경위에 대해선 “결혼 실패 이후 경제적 어려움으로 아이를 키울 여유가 없어 버렸다”며 혐의를 인정했다.

경찰 관계자는 “모자가 뜻하지 않게 서로 소재를 알게 됐으나 어머니 A씨가 아이를 키울 의사가 없어 보인다. 앞으로도 둘은 떨어져 지내게 될 것 같다”고 전했다.

/김한영기자 young@kwangju.co.kr

원룸 보증금 반환 오해…고려인끼리 다투다 흉기 부상

원룸 보증금 반환을 둘러싼 오해에서 비롯된 갈등 때문에 40대 고려인이 30대 고려인을 흉기로 찔렀다.

광주광산경찰은 1일 지인에게 흉기를 휘두른 고려인 김모(43)씨에 대해 특수상해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카자흐스탄 국적인 김씨는 지난 28일 밤 9시께 광주시 광산구 월곡동 박모(30)씨의 집에 찾아가 주먹으로 박씨의 얼굴을 한 차례 때린 데 이어 주머니에 갖고 있던 흉기를 꺼내 가슴 부위를 한 차례 찌른 혐의를 받고 있다.

흉기가 길지 않은 탓에 박씨는 생명에 지장이 없는 상태다.

지난해 3월 방문비자를 이용해 입국한 김씨는 평소 본국에서부터 알고 지내던 박씨가 세들어 살던 원룸을 넘겨받고도 보증금 50만원을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박씨에게 시달렸던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 조사에서 김씨는 “보증금을 박씨 부인에게 줬는데도 계속해서 달라고 해 화가 나 다투게 됐다”고 진술하면서 혐의를 인정했다고 경찰은 전했다.

/김형호기자 khh@kwangju.co.kr

“약국 단속 정보 사전 유출 없다” 경찰 내사 종결

광주동부경찰은 지역 약사회의 단속 정보 사전 유출 정황에 대한 내사를 종결한다고 1일 밝혔다.

‘처벌할 단계까지 위법 행위가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는 것이 경찰의 내사종결 이유다.

광주 동구보건소가 단속계획을 사전에 유출했다는 의혹에 대해 경찰은 연 1회 지도점검 계획을 약사회에 통보하는 규정에 따라 보건소가 공문을 사전에 보낸 것으로 위법성이 없다고 봤다.

지역 약사회장이 단속계획과 정보를 약사회 회원들에게 모바일 메신저로 공유한 정황도 문제가 없다고 결론 내렸다.

/김한영기자 young@kwangju.co.kr

술 취해 객기 부린 20대, 버스 뒤범퍼 매달려 100m 이동

쌍나팔

○…술에 취한 채 달리는 버스의 뒤범퍼에 ‘매미’처럼 매달려 간 20대 취객이 경찰서행.

○…1일 서울 혜화경찰에 따르면 만취한 회사원 A씨는 지난달 28일 새벽 0시 15분께 서울 흥인지문 인근 횡단보도 앞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버스를 발견하고 뒤범퍼에 올라탄 뒤 동대문역까지 약 100m 가량을 매달려 간 혐의.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술에 취해 객기로 그랬다”고 진술했는데, 경찰 관계자는 “떨어지면 사망하거나 연속 추돌 등 대형사고로 이어질 위험이 컸다. A씨에 대해서는 도로교통법 위반으로 범칙금 통고처분했다”고 설명. /연합뉴스

고려인 마을·완도 소안도서…만세운동 재연

광주·전남 곳곳 3·1절 기념식

제98주년 3·1절을 맞아 1일 광주·전남 곳곳에서 선열들의 독립운동 정신을 기리는 다양한 기념행사가 열렸다.

광주시는 이날 오전 10시 시청 대회의실에서 광복회 광주전남지부 회원, 학생, 공무원 등 시민 700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3·1절 기념식을 거행했다. 국민의례로 시작해 3·1운동 경과보고, 독립선언서 낭독, 기념사, 3·1절 노래제창, 만세삼창 순으로 진행됐다. 유경식 광복회 광주전남지부 유족회 총무를 비롯한 3·1운동 정신 계승 및 나라사랑 운동에 헌신해온 유공자 4명은 표창을 받았다.

광주시는 또, 이날 정오 국립아시아문화전당 앞 민주의 종각에서 민주의 종을 타종했다. 이날 타종행사에는 참여 시민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독립유공자 후손과 종교단체, 고려인 등 16명이 종각에 올라 3·1절 독립정신의 의미를 되새기는 염원을 담아 33차례 타종했다.

빼앗긴 조국을 떠나 러시아 벌판을 헤매다 광주로 돌아온 고려인들도 3·1절을 맞아 독립만세를 외치며 힘차게 태극기를 흔들었다. 광주고려인마을(광산구 월곡동) 주민들은 이날 오후 2시 월곡동 하남 제2어린이공원에서 3·1절 기념행사를 열었다. 고려인마을 청소년들은 3·1운동 만세재연 행사를 펼치고 주민들과 함께 ‘고려인 독립군가’ 노래를 부르며 선열들을 기렸다.

항일운동의 성지로 알려진 완도군 소안도 주민들은 오는 15일 소안도 가학리 소안항일 운동기념관 앞 광장에서 3·1절 만세시위를 재연하는 행사를 벌인다. 강진군 주민들은 다음달 4일 강진읍 남포마을 4·4 독립만세운동 기념탑 일원에서 만세운동 재연행사를 연다.

/ 전은재기자 ej6621@kwangju.co.kr

폐지 수집 노인 치어 숨지게 한 택시기사

운전 중 실신 아닌 졸음운전 자백

한낮에 수레를 끌고 가던 폐지수집 노인을 치어 숨지게 한 택시운전기사가 사고 직후 “(병력 때문에) 운전 중 의식을 잃었다”고 주장<광주일보 1월 11일자 7면>했다가 경찰의 추궁에 “졸음 운전했다”고 진술을 바꿨다.

광주서부경찰은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 혐의로 입건된 택시기사 전모(32)씨에 대한 수사를 마무리하고 조만간 검찰에 송치할 것이라고 1일 밝혔다.

전씨는 지난 1월 10일 낮 12시10분께 광주시 서구 농성동 편도 5차로 가장자리에서 수레를 끌고 걸어가던 이모(여·72)씨를 차로 들이받아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전씨가 몰던 빈 택시는 이씨를 친 뒤에도 수십m를 빠르게 돌진해 신호대기 중이던 차량 8대를 잇달아 들이받고서야 멈춰섰다.

그는 수사 초기 병원에 찾아온 경찰에 “뇌질환 약물을 10여년 복용했다. 요 며칠 약을 먹지 않아 갑자기 혼절했다”고 주장했지만, 최근 경찰이 “뇌전증 등 병력을 증명할 만한 의료기록 등 근거를 대라”고 추궁하자 “졸음운전을 한 것 같다”고 말을 바꿨다.

경찰 관계자는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의료기록을 확보해 분석한 결과 전씨가 뇌질환 치료약 복용을 시작한 때는 지난 2015년 2월 광주 남구에서 도로 경계석과 충돌한 단독사고 이후”라면서 “전씨가 처벌이 두려워 거짓 진술을 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김형호기자 khh@kwangju.co.kr

첨단 상가빌딩 매매 8층
(첨단삼성전자 정문 앞) 메가박스, 정부합동청사 1분
광주 최초 사무실(연구실) 전문빌딩 (월세수익내면서 내 건물 확보)
추천
■ 본사건물 / 지사 건물
연구실, 학교 연구소, 최적합 (고속도로 진입 5분)
■ 토지 500평
건물 904평
주차 60대 완비
■ 1층 상가 120평
2층 ~ 7층 (최고급 오피스 56개)
8층 (최고급 스카이라운지)
■ 시세가 60억
■ 매 가 38억
■ 문의 010-7384-7800 / 062-527-7600

첨단지구 사무실임대
광주최초 사무실(연구실) 전문빌딩
◈ 평수 15평
◈ 평수 12평
주차 60대 완비
즉시 입주 가능
투룸 가능
010-7384-7800
062-527-7600

전남 영광군
전원주택 매매
광주에서 40분 !!
토지 151평
건물 42평 (준공 2년)
◈ 매가 1억 1천만 (융 2천)
▣ 수기동 상가
6층 (45평) 천변로 전망 최고
보1천 월 60만 (리모델링 완비)
매가 1억4천만 (융 5천)
▣ 상무지구 상가매매
6층 (19평) 롯데마트앞, 상무나이트옆
상무지구 중심가 / 수림오피스텔
매가 7천200만
▣ 북구 중흥동 모아 A.P.T
15층 중 10층 (50평)
방 4개 욕실 2개 (내부 깔끔)
매가 2억3천
☎ 062-511-7800
062-527-7600

법률경매 ㈜ 대신경매
경매 추천 물건

▣ 나주 송월동 (복합 상가건물)
토 8,474평, 건 2,563평
나주혁신도시 5분!!!
수영장, 예식장, 사우나, 찜질방, 헬스장
나주 최고 복합상가
▶감정가 160억 → 최저가37억

▣ 서구 화정동 (근린시설)
토 48평 ,건 160평
서부소방서 1분
4차선 도로 접
▶감정가 3억8천 → 최저가 3억8천

▣ 북구 중흥동 (숙박시설)
토 91평, 건 340평
광주역 1분 (코너자리)
총 룸 30개 (달방수익 1천만 예상)
▶감정가 9억5천 → 최저가 4억2천

▣ 광산구 송월동 (상가건물)
토 226평 ,건 86평
광주 송정역 / 광산구청 1분
2차선 도로 접 / 코너 자리
▶감정가 14억5천 → 최저가 14억5천
직원 모집
부동산, 경매 관심 있으신분
가족처럼 일하실 분 모십니다.
(공인중개사 환영)
010-6670-9800 062-527-7600